

전도 역사의 증인들

빌립보서 3:10-14

류광수 목사님

안내부터 찬양대까지, 또 여러 군대를 보니까, 전과 다르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다. 중직자 분들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을 하시는구나 싶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최목사님께서 몇 가지를 보았다. 이 교회는 옛날에 개척이 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최목사님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신 것을 봤다. 중간에도 또 교회가 많은 불신양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 내셨다. 심지어 우리 다락방에서까지도 '이 교회는 다락방 안 하는 것 같다' 하고 오해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교회 안에 다락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복음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이해 못할 게 뭐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장기간 기다리면서 교회를 세우시더라. 지금 보니까 제자들만 남았다. 그런 가운데 52명의 중직자가 새로 서고, 지금까지 또 앞에서 최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중직자들, 제자들이 남은 것이다. 이 분들이 시작하는 상황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절대자시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절대 사명이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어떤 것이겠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오는 것이 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언약적 축복이다.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원적 축복이다. 막을 수 없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막을 수가 없다.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적 축복이다. 확실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전 중직자들과 새 중직자들과 모든 사명자, 참사랑의 가족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앞으로 걸어갈 50년을 대비해야 하니까.

1. 복음 없어지는 시대를 대비하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복음 없어지는 시대를 대비하라. 복음이 없어진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랬다. 망할 때에는 복음이 없어졌다. 그것을 대비하라. 그리고 지금 50명이 넘는 새 중직자들과, 앞의 중직자들과, 앞으로 일어날 많은 중직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셉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물었다. 끝이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을 듣지 마라. 복음으로 끝. 그러면 된다.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이제는 뒤에 일어날 많은 제자들과 앞의 선배들과 여러분이 손잡고, 이제는 참사랑교회에서, 이 지역

에 정말 복음운동하자. 방법은 간단하다. 꼭 기억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다. 됐지 않나. 틀린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바울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방향을 다 잡아 가셨다. 끝이다. 우리 지금 52명의 중직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신경 쓸 것 없다. 복음으로 모든 것 끝. 절대 속지 마라. 다른 것은 필요 없다.

(1)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끝난 것이다. 이 속에 언약적 축복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것 가지고 가면 된다. 뭘 해야 할 것이냐? 없다.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 어떻게 해야 잘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하는데, 다 틀린 것이다.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도 된다.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그 지식은 필요 없다. 내가 어떤 능력 갖춰서 해야 하느냐, 그 능력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 그래서 참사랑의 중직자 52명은, 앞의 선배님과 함께, 일어날 제자들과 함께, 무슨 답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 난 것이다. 여기에 사단은 무릎 꿇는다. 사단은 다른 것을 겁내지 않는다. 그 어떤 조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집을,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사단이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디에서 무릎 꿇는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에게 무릎 꿇어 버린다(행 1:12-14).

- 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중직자들은 이유도 없었다.
- ② "거기 가면 죽는다." 상관없었다. "아니, 네가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아 죽을 것인데?" 상관없었다.
- ③ "잘못하면 재물도 빼앗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도 못 할 것인데?"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응답을 그들에게 주셨다. 언약 잡으시기 바란다.

보통 내가 보니까, 20년 동안 부산에서 중직자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율법으로 가 버리더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제가 터지니까 율법으로 다 가 버린다. 별 문제도 아닌데, 전부 세상 속으로 가 버린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옛날에 그랬었다. 교회가 조금 문제가 나니까, 모든 중직자, 모든 교역자가 복음 아닌 율법으로 가 버렸다. 내가 밤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내가 모시던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진짜 기도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렸다. 알아들으셨을 것이다. 수도권을 살리자. 어떻게 살리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영적으로 체크하셔서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무엇으로 말인가? 복음으로 끝난 자. 어떤 문제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앞으로 이 교회가 진짜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 될 것이 없다. 꼭 기억해야 한다.

(3)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가지고 가게 되고, 사도행전 3장, 틀린 교회를 바꾸는 응답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2. 앞으로 일어날 재앙 시대를 막아라.

자, 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 두 번째다. 앞으로 일어날 재앙 시대를 막아라. 여러분이 두 번째 언약 잡을 것이 무엇인가? 재앙 시대를 막자. 그 중직자다. 재앙 시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기억하라.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기억하라. 나는 참사랑교회의 중직자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지금부터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대중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내가 영도에서 시작할 때, '나는 영도 여기 교회에 파송받은 목사.' 그래서 생을 걸었던 것이다. 여러분, 재앙 막아야 한다. 어떻게 막는가?

(1)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때 나서라. 여러분, 현장에, 교회에 어려움 올 때마다 생을 걸어 버려야 한다. 이게 재앙을 막는 것이다.

(2)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거기에 선교 문이 처음 열리는데, 바울이 문제가 아니다. 바나바가 문제가 아니다. 중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3)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새로 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든 것, 다 버려도 괜찮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사십 일 동안 집중하셨다. 왜냐, "다 버려. 걱정하지 말고" 자꾸만 여러분들은 틀린 것, 아닌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 하셨다. '권능 주고 증인으로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만 잡으면 된다. 첫째다. 복음으로 끝내라(1-(1)).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참사랑의 중직자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라(1-(2)).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오게 만들어라. 교회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라(1-(3)). 그렇게 되었지 않나. 두 번째가 무엇인가? 참사랑의 중직자임을 매일 같이 기억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3. 램넨트 시대를 대비하라.

마지막 세 번째다. 램넨트 시대를 대비하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은 램넨트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을 쓰셨다.

(1) 제1 RUTC운동이 무엇인지 아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도단성 운동. 그런 것들이 제1 RUTC운동이다.

(2) 제2 RUTC운동이 무엇인가? 모든 지역의 회당으로.

(3) 제3 RUTC운동이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적 문제가 온다. 막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면 된다. 진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한번 진짜 살려 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개척 시작할 때도,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다'고 했다. 개척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바로 15

분 거리에 내가 전에 있던 교회가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부목사였을 때 전도해서 제자로 만든 청년이 300명이 있었다. 우리는 당시에 청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하고, 전의 교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단 한 명도 오지 마라'고 했다. 차 안 밀리면 15분이면 영도까지 온다. 내가 키운 사람들이었다. 내가 전도해서 새신자에서 제자로까지 세운 사람들이었다. "한 명도 영도에 오지 마라. 하나님은 영도에서, 이 동네에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딱 한 명 왔다.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 (웃음) 그것도 갔다. 돌려보냈다. 당당하게 하라. 사람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이 지역을 살려라. 앞으로 없다 소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작은 것도 나중에 실패한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무리 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복음 없는 시대에, 정말로 그 시대 바꾸는 귀중한 역할을 대비하라. 재앙 시대를 막는 것을 대비해라. 램넨트 시대를 대비해라. 그러면 되게 되어 있다.

결론을 맺겠다. 나는 우리 최목사님의 사역이 시작이라고 본다. 왜냐,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진짜로 이분들을, 이 교회들, 정말 복음 전하는 제자로 만드는 사역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다. 부활에 참여하려 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땅의 것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다. 제대로 모델 교회가 한 번 되어 보라. 이제 더 큰 선교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이 어른들에게 이야기한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은 은퇴해도 전도하세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은퇴해야 할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RUTC세우고, 전 세계 제자들을 일으키고, 전 세계 중직자 세우고 일으켜야 합니다." 나는 참사랑교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안 나왔다. 아주 간단하다. 내 친척이 그랬다. "류목사, 뭐 어떻게 해서 전도운동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했다. "저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왜냐, 거기에는 다 들어있다. 그리고 내 직분, 여기에 올 인. 그리고 후대. 끝이다. 진짜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내가 언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이 정말 참사랑에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52명의 중직자들과, 앞서 교회들 지킨 중직자들과, 앞으로 일어날 3시대를 움직일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참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